□ 대만 대학 취재를 다녀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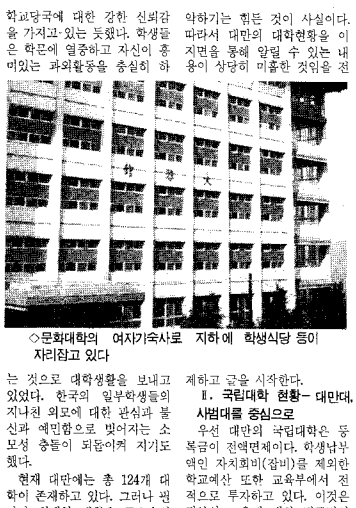
요란하지 않은 교육의 나라

소신있는 대학생활 통해 저력키워

이 원고는 본교 국제교류위원회가 국제화시대에 부응, 본교 학생들에게 세계에 대한 견문을 넓혀주고자 주최한 대만연수 취재기이다.
지난 2월23일부터 28일까지 5박6일동안 실시된 이번 연수는 본교 언론사 기자들이 대만의 각 대학 현황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둔 것은 현재의 한국대학과 대학생들의 생활을 점검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편집자 註)

Ⅰ. 들어가며

GNP 1만달러 이상을 달성한 대만의 모습은 전혀 요란하지 않았다. 일축하자면 검소함과 합리성이란 표현을 빌어볼 수 있겠다. 분명히 대만학생들과 한국학생들의 의식구조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면 과장된 것일까. 취재하면서 만난 대만 학생들의 외모는 소박하기 이를 데 없었다. 여학생들의 얼굴에서도 화장기라곤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또한 학생들 대부분이 정치 사회문제에 크나큰 문제의식을 지니지 않고 있었다. 오직 관심은 자신의 내실을 알차게 꾸려 나가는 것에 있었다. 결국 학교행정에도 학생복지에 관한 사항조차도 학교당국에 일임, 학교당국에 대한 강한 신뢰감을 가지고 있는 듯했다. 학생들은 학문에 열중하고 자신이 흥미있는 과외활동을 충실히 하는 것으로 대학생활을 보내고 있었다. 한국의 일부학생들의 지나친 외모에 대한 관심과 불신과 예민함으로 빚어지는 소모성 충돌이 되돌아켜 지기도 했다.



◇문화대학의 여자기숙사로 지하에 학생식당 등이 자리잡고 있다

현재 대만에는 총 124개 대학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원자가 취재한 대학은 극소수의 대학으로 그것으로 대만의 대학교육 상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는 힘든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대만의 대학현황을 이 지면을 통해 알릴 수 있는 내용이 상당히 미흡한 것임을 전제하고 글을 시작한다.

Ⅱ. 국립대학 현황- 대만대, 사범대를 중심으로

우선 대만의 국립대학은 등록금이 전액면제이다. 학생납부액인 자치회비(잠비)를 제외한 학교예산 또한 교육부에서 전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이것은 정부의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시사하는 한편 국립대학의 입시 경쟁이 치열하리라는 점작을 가능케 하고 있다. 사범대의 경우 학력고사 경쟁률이 6.5대 1정도이다.

대만의 국립대학들은 고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따라서 각 대학들은 학부과정보다 석사, 박사코스를 중시하고 있으며 연간 많은 석박사를 배출하고 있다.

대만대학은 대만의 대학중 가장 큰 대학으로 각 대학이 특정분야를 중점교육하여 각기 특색이 있는 반면 대만대학은 이공계열을 모두 총괄하고 있다. 이렇게 대만의 우수한 인재들의 집합체인 대만대학의 학생들은 자칫 공부벌레로 통칭하기 쉬우나 그곳 학생들 역시 공부하고 남는 여가시간에는 동아리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3백여개의 동아리들에 대학 2학년까지는 대부분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동아리활동 소요경비는 일부는 학교에서 보조하며 회사와 교육비, 재단의 도움으로 충당하고 있다.

교사전문양성 대학인 사범대(등록금과 잠비 모두 면제)는 대만 국립대의 대부분이 그렇지만 기숙사시설과 도서관 시설이 특기할 만하다. 사범대의 기숙사는 다이베이시외에 있는 사람이면 거의 들어갈 수 있는 규모이다. 사범대학의 도서관은 대만 전국에 있는 1천여개의 도서관 중 TOP 5안에 속한다. 도서관 장서는 80만6천여권으로 교수는 1회에 40권의 대출되며 6주내 반환, 교직원은 10권까지 대출되며 3주 이내에 반환, 대학원생은 20권 대출에 6주이내에 반환, 학생은 5권까지 대출할 수 있으며 3주 이내에 반환하면 된다. 보유하고 있는 논문 수는 사범대 논문만 총 3천2백86권이며 main도서관의 열람실은 예술, 사회과학분야의 학생들을 1천여명 수용할 수 있으며 도서관 분부는 과학분야의 학생들만 6백여명 이용할 수 있다.

도서관의 전자장치는 거의 완벽하다. 12개의 OPAC(On-line Public Access Catalog), CD ROM 50여개 외 컴퓨터 네트워크 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한 사범대학 도서관은 50만개의 micro fich와 1천여개의 micro film을 확보하고 있으며 고전운악 CD관 2천여개와 영어와 중국어로 방송되는 6개의 방송채널이 있어 학생들이 의자에 앉아 헤드폰을 꽂으면 원하는 유악과 방송을 청취할 수 있다.

Ⅲ. 사립대학 현황-문화대를 중심으로

대만의 사립대학은 최고 등록금의 40%까지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국립대학이 등록금의 전액을 혜택받을 수 있는 반면 사립대학은 약 1백여만원의 등록금을 납부한다.

도서관이나 기숙사시설, 교수와 학생수의 비율등이 다른 국립대보다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일반 학생들의 생활은 다를 것이 없다. 학문에 열중하는 것을 가장 근본으로 하고 과외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으며 좀더 자신의 실력과 소양을 정진하고 학교의 발전을 위하는 노력들을 계속 시도하고 있다.

본교와 자매결연 학교인 문화대의 경우 좀더 나은 교수들을 채용하기 위해 교수 선발시 각학과의 엄격한 심사와 단대, 최종적으로 학교 심사위원을 거치지만 무엇보다 학문특성에 맞는 교수를 채용하기 위해 각 학과의 심사를 가장 중요시 하고 있다. 또한 학기에 한번은 강의 평가 설문지를 돌려 교수평가의 기반으로 삼고 있다. 학생들의 장학금은 학교부서인 과외활동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동아리 활동을 하는 이들중 성적순으로 혜택이 돌아간다. 물론 대부분의 학생이 과외활동을 하고 있다. 학생취업에 있어서도 학교와 학생이 함께 더 많은 대만의 기업들에 학생들을 밀착시키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장을 구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문화대는 현재 학교수준을 더 높이기 위해 다른 대학보다 개강을 일찍하는 가 하면 졸업학점을 더 높게 책정하는 등의 열의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다.

Ⅳ. 나오며

위에서 알수 있듯 대만 역시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이 시설 및 복지면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국·사립대의 학생 및 그 구성원들에게는 그러한 차이가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문화대에서 만난 한 학생은 "모든 문제는 자신에게 있다. 자신의 실력과 능력이 부족하면 취업경쟁에서 뒤처지고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라고까지 말하기도 했다. 약간은 소극적인 발상일 수 있겠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분명히 오늘도 열심히 학문에 정진하고 있으며 소신껏 대학생활을 하고 있음도 사실이다. 이러한 모든 것이 지금의 대만의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키는 저력이 아닌가 싶다.

◇대만사범대학 도서관, 각종 전자장치로 정보의 기능을 다하고 있다

◇한국 유학생의 대만살이

부담없고 유익한 유학생활 누려

대만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1월말 현재 대만 현지에는 3천6백82명의 한국 유학생들이 있으며 이중 2천여명이 어학연수 학생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교출신 유학생들은 7여명, 여기에 어학연수 학생들을 포함하면 총18여명이 학문에 열중하고 있다.

이들 본교출신 유학생들의 대부분인 중문과 출신들은 주로 중국문학을 전공, 일부는 한국의 경영학과, 즉 기업관리학과 동양미술학과에 진학하고 있다.

어학연수는 보통 1년코스로 대만의 사범대학 단강대학 연수원에서 중국어를 익히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어학연수 이후에도 학기중 수치례 대만에 드나들며 계속적으로 중국어를 연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은 지리적, 문화적으로 밀접해 있어 한국 학생들이 별부담없이 갈 수 있는 국가이다. 비교적 값싼 항공료와 저렴한 등록금, 생활비 제다가 이국인 취급을 덜받는 호조건을 갖추고 있다.

국립대 대학원에 진학한 유학생들은 학기당 15만원 정도의 등록금을 납부, 사립대대학원에 진학한 이들은 올해부터 1백여만원의 등록금을 납부하고 있다. 또한 어학연수 학생들의 생활비를 포함한 연수비용은 월 약 70여만원 정도이다. 이들 모두는 대만현지에서 뜨거운 학구열을 불태우고 있으며 일부는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등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한편 이곳 경희동문의 연대의식은 타대학과 남달라 마치 가족처럼 똘똘뭉쳐 이국생활을 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이들 본교유학생들에게 한가지 불만사항이 있다. 다름아닌 지난 92년 8월 국교단절이후 대만의 한국 유학생들에 대한 장학금혜택이 대폭 줄어든 것이다. 한국 유학생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단교이전에는 본교 출신 동문들의 20%가 장학금혜택을 입었었다. 그러나 단교직후는 한국 유학생은 단한명도 장학금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물론 요즈음 그러한 불이익들이 점차로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

인터뷰

위위짜오(余玉照) 대만교육부 국제문교처장을 만나

질높은 교육을 통한 지도자 양성

-대만은 교육에 대한 열의가 높다고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고등교육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92~93년 조사에 따르면 인구 1천명당 학생수가 2백5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종합대를 비롯 각 단과대, 전문대 수는 평균면적 1천㎢ 당 3개씩 입니다. 즉, 대만인구 2천1백만명중 총학생수는 5백23만명이며 대학수는 종합대학이 21개대, 단과대 29개대, 전문대 74개대가 있습니다. 대학교 전학들은 종합대학이 전체 수험생의 23.4%로 전문대를 포함하면 42.3%에 이릅니다. 이러한 수치만 보더라도 대만의 교육열이 높다는 것이 증명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교육부문에 정부가 투자하는 교육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최 헌법에 문화 교육부문에 관한 예산편성은 전체국가 예산의 15%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92~93년 현재 교육비는 GNP의 7%였습니다. 그러나 94년 올해는 GNP의 9.06%로 증액할 예정입니다.중앙정부 예산의 15%, 출발점예산의 20% 지방정부 예산의 30%가 교육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액수로 말하자면 총 NT$9백81억으로 작년의NT$9백69억보다 NT$12억 증가합니다. 한화로 따지면 3조 4백억이 교육비로 편성되는 것이죠. 그리고 국가에서 국립대학은 등록금을 100%로 지원하고 있으며 사립대학은 등록금의 4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교육기관 조직은 교육부 이외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선 가장 상위 교육기관 조직은 교육부입니다. 다음으로 지방교육 행정부와 교육시의회, 지방교육시의회 분부가 있습니다.이들 교육기관 조직들은 활발히 연계하여 너나은 교육환경 조성과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학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마 한국과 비슷할 것입니다. 대만은 유아교육 2년, 국민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과정이 2~6년이며 대학원 석사가 최소 2년, 박사가 최소 2년과정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특이한 것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전문대학 과정이 2가지 형태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한가지 형태는 중학교 졸업생이 진학하여 5년동안 교육받는 것이며 다른 한 형태는 고등학교 졸업생이 진학해서 2~3년동안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인재 양성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제로 이러한 전문대학 출신들은 대만의 중소기업을 이끌어 가는 주축인물이 되어 대만 경제의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교사 교육기간은 고등학교 졸업생이 진학하여 4년의 교육기간외에 1년간의 실습기간을 거쳐 교사로 임용되고 있습니다. 의과대학은 6년 과정을 거칩니다.

-95년부터 세계 각국들이 교육개방을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본인은 국제 문화 교육의 교류 측면이 더욱 강화되기를 희망합니다. 대만은 그러한 교류들을 대비하여 교육개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994년을 '교육개혁의 해'로 설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가지 교육법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수정되었습니다. 연초에 통과된 교사 배출법에 따르면 기존의 사범대, 교대 학생들에게만 주어졌던 교사임용권을 사범대 학생이 아니더라도 일반대학에서 일정 성적에 달하면 누구나 교사가 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학생의 연구분위기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학생과 교수사이의 관계를 재정립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대학에게 자치권을 충분히 부여하여 학내의 조직구성에 있어 학생들이 학교 '의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것입니다.

또한 올해 1월달 국회에서 통과된 대학법에 따르면 학교 교장의 선출은 선거에 의하되 금년은 5분의 1정도부터 실시한 예정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1994년 교육개혁을 위한 방안들을 더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 주요안건은 총 8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첫째 교육자원의 재분배, 둘째 유용하고 효율적인 학제의 재조정, 셋째 각급학교의 달성 내용을 재정리, 넷째 효율적인 교사 배출방법, 다섯째 각 대학의 질 향상, 여섯째 평생교육의 추진, 일곱번째 국민체육의 추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의 법제화로 대륙과의 학술교류 방안을 법제화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처장님의 교육관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대만이 부강하게 된 것은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훌륭한 지도자는 바로 질높은 교육이 토대가 되어 배출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더더욱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할 것입니다.

1994년도 징병검사실시 공고

1. 징병검사 대상자

75년 1월1일부터 75년 12월31일까지 출생한 사람(19세 미학 재학생 포함)
74년 이전 출생한 사람으로서 징병검사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2. 병역처분 기준

신체등위 / 병역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 화	현 역				제 2 국민역	병역면제	제검사 대 상
고 졸							
고 퇴	보 충 역						
중 졸							

보충역 대상	○ 전시,순직 또는 상이(공)도가 5급이상인 전·공상 군인의 자제중 1인
제2국민역대상	○ 고아,귀화자,외관상 시법이 명백한 혼혈아

3. 학력과 신체등위에 관계없이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이 되는 사유

시도	시·군·구	검사기간
서울	관악구	1.31~2.19
	금천구	2.21~5.8
	영등포구	3.9~3.25
	동작구	3.26~4.14
	남부순환로	4.15~4.28
	신림동	4.29~5.17
	신촌로	5.18~6.15
	대문구	6.16~6.30
	서대문구	7.1~7.21
	은평구	7.22~8.22
	초동지역	8.23~9.3
	미아동	9.5~9.30
	강북구	10.1~10.22
	도봉구	10.24~11.5
	성북구	11.7~11.17
	동대문구	11.18~11.30
	중랑구	7.18~7.27
	성동구	7.28~9.1
	광진구	9.2~10.5
	송파구	10.6~10.26
	강동구	10.27~11.16
	서초구	11.17~11.30
	강남구	9.16~9.23
	동작구	5.24~6.4
	사당동	6.7~6.16
	관악구	6.17~6.27
	동작동	6.28~7.12
	남부순환로	7.13~7.28
	신림동	7.29~8.17
	관악구	8.18~9.6
	남부순환로	9.7~10.1
	신림동	10.4~10.24
	관악구	10.25~11.5
	동작구	11.7~11.12
대구	중구	4.29~5.7

시도	시·군·구	검사기간
대구	동구	5.8~5.20
	남구	5.26~6.2
	서구	6.3~6.11
	북구	6.13~6.16
	수성구	6.17~6.25
	달서구	6.27~7.11
인천	남동구	3.21~3.26
	부평구	3.27~3.31
	북구	4.1~4.13
	중구	6.14~6.28
	동구	9.29~7.13
	남구	7.30~8.13
	연수구	8.16~8.27
	강화군	8.24~8.31
광주	동구	9.1~9.8
	서구	8.8~8.19
	남구	8.20~8.30
	북구	8.31~9.7
	광산구	9.7~9.9
대전	동구	9.10~9.13
	중구	1.31~2.1
	서구	2.12~2.21
	유성구	2.22~2.28
	대덕구	3.2~3.11
울산	중구	3.12~3.28
	남구	3.29~3.31
	동구	4.1~4.3
	북구	4.8~4.19
	울주군	4.20~4.30
경기	수원시	3.2~3.11
	성남시	7.11~7.18
	의정부시	7.19~7.21
	안양만안구	5.25~6.3
	안양동안구	6.4~6.10
	부천시	6.11~6.15
	광명시	6.17~6.18
	평택시	6.20~6.22
	동두천시	6.23~6.25
	안산시	6.27~6.29
	고양덕양구	6.30~7.1
	고양일산구	7.2~7.6
	남양주시	7.7~7.11
	오산시	7.12~7.14
	시흥시	5.16~5.19
	군포시	5.20~5.23
	의왕시	5.24~5.26
	하남시	5.27~6.3
	이천시	6.4~6.10
	안성시	6.11~6.15
	김포시	6.17~6.18
	화성군	6.20~6.22

시도	시·군·구	검사기간
경기	광주군	6.23~6.30
	양주군	7.1~7.2
	포천군	7.4~7.6
	여주군	7.12~7.19
	연천군	7.20~7.30
	가평군	9.14~9.29
	양평군	9.30
강원	춘천시	10.1~10.8
	원주시	10.10~10.18
	강릉시	10.19~10.28
	동해시	10.29~11.5
	태백시	11.7~11.10
	속초시	11.11~11.18
	삼척시	11.19~11.21
	홍천군	11.22~11.30
	횡성군	5.16~5.20
	영월군	5.21~5.23
	평창군	5.24~5.26
	정선군	5.27~6.3
	철원군	6.4~6.7
	화천군	6.8~6.10
	양구군	6.11~6.15
	인제군	6.16~6.17
	고성군	6.20~6.22
	양양군	6.23~6.28
충북	청주시	6.29~7.2
	충주시	7.4~7.8
	제천시	7.9~7.14
	청원군	7.16~7.30
	보은군	9.15~9.24
	옥천군	9.26~9.29
	영동군	9.30~10.7
	진천군	10.8~10.13
	괴산군	5.16~5.23
	음성군	5.24~5.31
	단양군	6.1~6.2
	증평군	6.3~6.14
	충북도청	6.15~6.21
	충북도교육청	6.22~6.28
충남	천안시	6.29~7.2
	공주시	7.4~7.8
	보령시	7.9~7.14
	아산시	7.16~7.30
	서산시	9.15~9.24
	논산시	9.26~9.29
	계룡시	9.30~10.7
	당진군	10.8~10.13
	금산군	5.16~5.23
	부여군	5.24~5.31
	서천군	6.1~6.2
	청양군	6.3~6.14
	홍성군	6.15~6.21
	예산군	6.22~6.28
	충남도청	6.29~7.2
전북	전주시	7.4~7.8
	군산시	7.9~7.14
	익산시	7.16~7.30
	정읍시	9.15~9.24
	남원시	9.26~9.29
	김제시	9.30~10.7
	완주군	10.8~10.13
	진안군	5.16~5.23
	무주군	5.24~5.31
	장수군	6.1~6.2
	임실군	6.3~6.14
	순창군	6.15~6.21
	고창군	6.22~6.28
	부안군	6.29~7.2
전남	목포시	7.4~7.8
	여수시	7.9~7.14
	순천시	7.16~7.30
	나주시	9.15~9.24
	광양시	9.26~9.29
	담양군	9.30~10.7
	곡성군	10.8~10.13
	구례군	5.16~5.23
	고흥군	5.24~5.31
	보성군	6.1~6.2
	화순군	6.3~6.14
	장흥군	6.15~6.21
	강진군	6.22~6.28
	해남군	6.29~7.2
	영암군	7.4~7.8
	무안군	7.9~7.14
	함평군	7.16~7.30
	영광군	9.15~9.24
	장성군	9.26~9.29
	완도군	9.30~10.7
	진도군	10.8~10.13
	신안군	5.16~5.23
경북	포항시	5.24~5.31
	경주시	6.1~6.2
	김천시	6.3~6.14
	안동시	6.15~6.21
	구미시	6.22~6.28
	영주시	6.29~7.2
	영천시	7.4~7.8
	상주시	7.9~7.14
	문경시	7.16~7.30
	경산시	9.15~9.24
	군위군	9.26~9.29
	의성군	9.30~10.7
	청송군	10.8~10.13
	영양군	5.16~5.23
	영덕군	5.24~5.31
	청도군	6.1~6.2
	고령군	6.3~6.14
	성주군	6.15~6.21
	칠곡군	6.22~6.28
	예천군	6.29~7.2
	봉화군	7.4~7.8
	울진군	7.9~7.14
	울릉군	7.16~7.30
	경북도청	9.15~9.24
	경북도교육청	9.26~9.29
경남	창원시	9.30~10.7
	진주시	10.8~10.13
	진해시	5.16~5.23
	통영시	5.24~5.31
	사천시	6.1~6.2
	김해시	6.3~6.14
	밀양시	6.15~6.21
	거제시	6.22~6.28
	양산시	6.29~7.2
	의령군	7.4~7.8
	함안군	7.9~7.14
	창녕군	7.16~7.30
	고성군	9.15~9.24
	남해군	9.26~9.29
	하동군	9.30~10.7
	산청군	10.8~10.13
	함양군	5.16~5.23
	거창군	5.24~5.31
	합천군	6.1~6.2
	창원시	6.3~6.14
	마산시	6.15~6.21
	진해시	6.22~6.28
	충무시	6.29~7.2
	김해시	7.4~7.8
	밀양시	7.9~7.14
	거제시	7.16~7.30
	양산시	9.15~9.24
	의령군	9.26~9.29
	함안군	9.30~10.7
	창녕군	10.8~10.13
	고성군	5.16~5.23
	남해군	5.24~5.31
	하동군	6.1~6.2
	산청군	6.3~6.14
	함양군	6.15~6.21
	거창군	6.22~6.28
	합천군	6.29~7.2
제주	제주시	7.4~7.8
	북제주군	7.9~7.14
	남제주군	7.16~7.30

4. 징병검사 연기등 출원안내

- **징병검사 연기**
  질병, 선원, 구속 또는 복역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일자에 징병검사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검사기일 5일전까지 본적지 시·구·읍·면 장에게 연기원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 징병검사**
  거주지에서 징병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지 시·군·구의 징병검사 개시 20일전까지 거주지 시·구·읍·면장에게 거주지 징병검사 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상근예비역 복무지원**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1년의 기간내에서 현역복무를 마친후 예비역에 편입되어 1년 6월이내의 기간동안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향토방위와 관련한 분야에 상근예비역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은 징병검사시 상근예비역 복무지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현역병 조기입영**
  19세자로서 금년도에 현역병으로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징병검사시 입영 희망원을 출원하시기 바랍니다.
- **재학생 입영연기 및 입영원**
  징병검사를 받은후 고교이상의 학교에 재학 또는 입학한 사람은 학교별 제한년령 〈전문대학 : 22세,대학 : 24세,대학원 : 26세〉내에 졸업이 가능한 점우에 한하여 법도 출원없이 학적보유자 명부에 의거 졸업시까지 입영이 연기됩니다.
  ※대학중 입영을 원하는 사람은 학적을 보유한 채 본적지 또는 거주지의 지방병무청이나 시·구·읍·면·동에 입영원을 제출하면 가능한 범위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입영가능

병무상담 병무부조리 신고	
서울 720-4005	부산 808-3920
대구 252-8011	수원 258-7080
광주 223-3912	대전 253-4901
울산 54-7011	청주 273-3901
전북 83-9222	전주 52-3910
전남 66-3913	광양 43-3912
경북 43-3910	

병 무 청 장